

버려진 미술작품에 새 생명을 불어넣다



28일 첫번째 기획 전시를 개최하는 '제2아트' 구성원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민국, 여진호, 강동현, 유송희, 조우리, 최재희, 박영미. <늘찬 제공>

작년 11월 출범한 조선대 예비사회적기업 '늘찬'의 '제2아트'



졸업전 등 방치된 그림·재료 재활용

꿈 접은 작가·예술 소외 어린이 지원

28일~4월 8일 우영갤러리서 첫 전시

작가 11명 선정 '다시 걷는 꿈길' 전

매년 각 대학 예술대학 학생들은 졸업작품 전시회를 연다. 졸업전시회는 4년간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로서 내딛는 첫발이기에 학생들은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졸업작품을 택한 졸업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졸업전시회 출품작들은 버려지거나 집안 환경에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는 상황이다.

'이 작품들이 다시 빛을 볼 순 없을까?'

지난해 11월 조선대학교 학생 9명이 만든 예비사회적기업 '늘찬'은 여기에서 출발했다. 작가를 꿈꿨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쳐 붓을 놔버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열어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자고 취지다. 작품 판매 수익금을 다시 작가들에게 돌려줘 창작을 지속할 수 있게끔 돕는 선순환 구조다.

또 미술수업 과정에서 쓰다만 미술재료가 그냥 버려진다는 데 주목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모아 저소득층 아이들 미술교육에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재능과 소질이 있지만 금전적 이유 때문에 전문적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대생들이 미술지도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다.

'늘찬'은 지난해 1학기 '문화콘텐츠' 수업(지도교

수 장병석·정진철)에서 비롯됐다. 경영대, 법대, 예술대 등 다양한 학과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창업동아리를 만들었다. 지난해 10월 LH가 진행한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창업지원금을 받으며 회사 토대가 만들어졌다. 버려지고 방치된 미술품과 재료들이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로 사업명은 '제2아트'(2ND ART)로 붙였다.

경영학과 4학년 여진호(24)씨가 대표를 맡아 운영 전담을 책임지고 있다. 영임 김민국(25·법학과), 재무 강동현(24·경영학부)·최홍은(23·영어영문학과), 디자인 조우리(24·가구디자인과), 홍보 최재희(23·법학과)·박영미(23·러시아어과), 마케팅 유송희(20·경영학부)·김혜원(24·회화학과) 등 각 분야는 참여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담당하고 있다.

처음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시 기획부터 작가 구성, 홍보 등이 차근차근 진행되며 28일 첫번째 전시를 연다. 4월8일까지 광주시 동구 우영갤러리에서 개최하는 '다시 걷는 꿈길'전. 외국인도 포함한 작가 11명이 참여해 작품 25점을 출품했다. 작품 판매가는 크기에 따라 6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하다.

팝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디자인은 조우리가 솜씨를 발휘했다. 분홍색 바탕, 세련된 글씨체가 눈길을 끈다. 흑시라도 모를 수익금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법학과 최재희씨가 계약서 작성을 담당했다.

참여작가 모집은 광주지역 소셜 네트워크 '아따 광주랑'의 도움을 받았다. 작가 선정과 작품 설치는 동양화를 전공한 김혜원씨가 힘을 보탰다.

구성원들은 포스터 100장을 광주 각 지역에 붙이며 홍보에 팔을 걷어부쳤다. 취지와 사업 설명을 적은 손편지를 작성해 작품을 구입할 만한 광주지역 기업 100군데에 보내기도 했다. 일부 회사는 반송을 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이번 전시를 성공시켜 이름을 알리면 된다는 긍정적 마음에서다.

좋은 소식도 생겼다. 포스터를 붙이던 상무지구 카페 '하트바움' 대표는 다음 전시 장소 제공과 작품 재료비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제2아트'는 이번 전시를 밑거름 삼아 지역아동센터 등과 미술교육을 연계할 계획이다. 청년작가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도 판매 작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단순히 금전만 지원하는 기부문화를 바꿔놓겠다는 당찬 생각이다.

재무 강동현씨는 "예전에 기업에서 했던 인턴경험과는 달리 '늘찬'은 모든걸 직접 해야하니 실질적으로 배우는 점이 많다"며 "특히 포스터를 붙이러 갔을 때 흔쾌히 공간을 제공해 준 분들을 통해 광주가 문화적으로 뜨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진호 대표는 "구성원들이 학생이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보니 아직까진 미비한 점이 많지만 가까이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많아 뿌듯함을 느낀다"며 "지금 구성원들이 졸업을 해도 후배들이 꾸준히 이어가기 기부문화를 바꾸는 데 일조하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의 010-5234-420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광복



유경조

영·호남 달빛 동맹 교류음악회

대구시립국악단-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31일 광주문예회관

'달빛 동맹'을 맺고 있는 대구와 광주는 경제, 사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민·관 차원에서 양 지역을 오가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구시립국악단(지휘자 유경조)은 광주 지역 국악단체와 꾸준히 합동공연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광주시립국악단과 창작 창극 '신혼향전'을 무대에 올렸던 대구시립국악단이 이번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자 김광복)과 함께 합동 무대를 마련한다. 두 단체가 함께 준비한 '영·호남 달빛 동맹 교류음악회'가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창작 관현악곡, 정통 국악, 가야금·소프라노 협연 등 전통과 현대, 동 서양 음악을 아우르는 작품으로 레퍼토리를 짰다. 5월12일에는 대구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진행한다.

가수 이연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 1부는

대구시립국악단이 장식한다. 첫 곡은 관현악곡 '상주 모심기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삶의 노래'이며 김은주씨가 가야금 협주곡 '김병효류 푸른 사막의 여정'을 협연한다. 또 소프라노 이윤경씨가 '내 영혼의 바람되어', '새타령'을 협연하며 마지막 곡은 흥겨운 타악 협주곡 '회오리'다.

2부를 책임지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첫 곡은 관현악곡 '하늘을 담은 바다'가 장식한다. 창과 관현악이 어우러진 '박타령'을 전지혜씨가 협연하며 몽골 연주자 나라통갈락은 전통악기 호치리 협연곡 '회상'을 들려준다. 또 이안은 대표곡 '물고기 자리', '아리요'를 선사한다.

3부는 양 단체가 함께하는 웅장한 무대다. 100여명의 단원이 연주하는 '사물놀이를 위한 관현악 신묘음 3악장'이다. 김광복 상임지휘자가 단원들을 이끌며 이왕재, 안연섭, 김용석, 김광숙씨가 사물놀이 협연에 나선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문의 062-512-53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목의 춤사위 기록사진전

4월 3일까지 은암미술관서



리일천 작 '시원 박태후 작품 시연 모습'

은암미술관이 28일부터 4월3일까지 '수목의 춤사위 기록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7~11일 미술관에서 진행된 '수목작가'들의 창작과정은 찍은 아카이브 사진전이다. 당시 석주 박종석, 담현 전명옥, 남리 허임서, 목은 오연구, 금봉 박행보, 시인 손광은, 맥담 한상운, 지봉 윤영동, 고현 조창현, 시원 박태후 등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일반인들 앞에서 서예, 수묵을 그리며 기법, 작품에 대한 고민 등을 공개했다.

촬영은 리일천 사진작가가 맡았다. 리씨는 5

일 동안 작가들과 호흡하며 사진 약 5000장을 기록으로 남겼다.

붓과 먹물로 화선지에 그려낸 한국 전통수묵화를 흑백 사진으로 인화함으로써 현대적 매체로 재탄생시켰다. 사진 속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붓만 들었던 각기 다른 자세, 표현 방법, 표정을 보여주었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당시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수목 애호가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작가들의 창작 열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